

『聖學輯要』에 나타난 자녀교육관

Hildrearing Philosophy in 『The Anthology of the Essentials Sagely Learning』

원광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전임강사 : 洪 달아기

Dept. of Home Management

Wonkwang University

Full-time instructor : Dal A Gi Hong

本 研究는 韓國傳統社會의 子女教育觀을 栗谷이 저술한 「聖學輯要」를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다. 「聖學輯要」 正家篇 教子章에서는 人間의 本性은 善한 것이라고 믿고 누구든지 노력하면 聖人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아 특히 教育시킬 것을 강조했다. 즉 受胎하기전 父母됨의 자세에서부터 논의하여 70세에 이르기까지 發達課業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現代教育에서의 生涯 發達과 비슷한 觀點을 보인다. 고찰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胎敎의 중요성이다. 자녀는 마땅히 잉태이전 父母의 禮가 올바르게 세워진 연후에 가져야 하며 胎兒에게 좋은 胎內 環境 造成을 위해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둘째 早期敎育과 環境의 중요성이다. 子女는 스스로 밥 먹을 줄 알면서부터 敎育시켜야 하며 일상생활을 통한 反復學習에 의한 習慣形成을 강조했다. 또한 乳母를 정할 때도 人性形成의 막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히 고를 것을 말했다. 셋째, 敎育하는 順序와 學問하는 姿勢를 강조하였다. 네째, 生活敎育을 강조했다. 家庭에서의 子女敎育이란 일상생활을 통한 敎育이 중요함을 말했다. 다섯째, 學問을 할 때는 몸가짐과 마음 가짐이 成敗를 좌우한다고 했다.

이와 같은 子女敎育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상은 誠實함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生涯學習이나 自我實現이란 것도 立志를 돈독히 하여 꾸준히 誠實한 姿勢를 갖는 것이 人間의 계속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는 動因이 된다는 것이다.

I. 서 론

本 研究는 傳統社會의 文化는 새로운 文化를 창조해 내는 기반이 되는 것으로 보고 傳統社會의 자녀敎育이 어떠한 형태와 내용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現代의으로 再照明해 볼때 어떤 意味가 있으며 계승해야 될 價値가 무엇인가를 究明하여 미래의 자녀敎育에 대한 한 시사점을 마련하고자 한다.

오늘날 韓國社會는 傳統社會로부터 現代社會로의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져 우리의 傳統思想과

文化가 도외시되고 서구의 個人主義와 物質文化를 바탕으로한 實用主義의 價値觀이 가중되는 현실이다.

韓國人의 傳統文化를 탐구하는 연구들은, 한국인들이 외래문화 수용하면서도 그 깎임의 과정에서는 외래문화의 영향을 받아 그 ‘形式’은 변할지라도 ‘內容’은 불변한다고 하였으나 教育의 경우는 ‘形式’만이 아니라 ‘內容’까지도 대치되고 있음을 고찰하였다(李啓鶴, 1993). 더구나 오늘날 자녀교육 내용이 人間形成의 측면보다는 知識위주의 教育으로 편중되고 있다는 것은 그 동안 많이 지적되어 왔다.

한국에 있어서 현대 家庭教育上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價値觀의 混亂과 多樣性에서 가정교육의 목표를 상실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전통사회에서는 宗教的 論理인 禮義凡節을 지키며 勤儉節約하는 사람을 기르는 것을 확고한 목표로 삼음으로써 세대간 가치의 갈등도 없었다. 그러나 現代社會는 西歐의 價値觀의 유입과 급격한 도시화의 여러 특성의 영향으로 가치의 혼미상태에서, 한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를 말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당황하고 있음이 문제가 된다.

傳統社會에 있어서 家庭教育의 방향은 五倫에 입각한 人倫道德, 人間關係, 社會秩序에 적응하고 이를 실천하는 데 역점을 두었으며, 朝鮮社會의 士大夫 階層은 家庭을 통해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朱子學의 人倫道德과 秩序倫理를 배우고 익히게 하였다. 그래서 傳統社會에 있어서 家庭의 役割은 子女教育중의 과반수 또는 전부를 담당하는 綜合教育機關이었다.

尹明老(1985)는 家族間의 倫理, 道德的 實踐을 위해서 보다 필요불가결한 것은 어린시절부터의 가정교육을 통한 道德的 生活의 習慣化인데 이것은 선인들이 윤리, 도덕정신을 가정교육을 통해 자손에게 전해왔던 것처럼 先人들이 이어온 전통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본 研究는 앞에서 밝힌 現 우리사회의 家庭教育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아직도 전통사회의

儒敎思想이 우리의 생활양식과 행동양식의 기저를 이루고 있으며, 전통사회에 있어서 家庭教育의 目的과 추구해야 할 價値가 분명한 점을 감안할 때, 『聖學輯要』의 正家篇 중 教子章을 중심으로 전통 유교사회의 자녀교육관을 고찰하는 것은 의의 있는 일이라 사료된다. 즉 이를 고찰함은 한국인의 전통적인 자녀교육 사상, 그리고 자녀교육의 양식과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며 나아가 한국인이 전통적으로 중시해온 인간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성찰함으로써 韓國의이며 自律的인 社會人으로 길러내기 위한 뿌리 있는 子女教育의 目的과 價置觀 확립을 위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II. 본 론

1. 聖學輯要의 저술동기와 구성

성학집요는 栗谷이 40세(1575.7.)에 저술한 것으로 君王의 道를 자세히 설명했다. 당시 25세인 宣祖에게 올린 저술로서 중국철학의 대표적 유교경전인 6經4書 와 宋代 유학자들의 저술에서 精髓만을 뽑아 정리한 것(Tu Wei-Ming, 1985, 318)으로 일종의 編著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율곡은 성학집요의 저술이 자신의 글이 아니라 성현의 글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율곡을 단순한 전달자라고는 할 수 없으며 凡例에 보면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때는 ‘신이 살피건대(臣按)’라고 한다고 했고 小註는 대개 자신의 의견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것을 통해 율곡의 견해를 살펴볼 수 있다.

성학집요의 저술동기는 사람들이 道學에 밝지 않아서, 수많은 經書들이 있지만 理致를 살피는 것이 精密하지 못하고, 知見이 넓지 못하여 실천함이 篤實하지 못한 것은 그 요령을 얻지 못한 까닭이므로 道學의 요령을 얻어 실천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栗全 卷19, 進劄). 성학집요에는 君王의 道를 밝혔으나 세상의 道理는 상하에 통하므로 아래로는 일반 백성에게 이르기 까지 널리 보고 마땅히 효과를 얻을 것을 序文에 밝히고 있다(洪달아기, 1993).

본 연구는 성학집요에 나타난 子女教育觀을 고찰하고자 하므로 제 3편 正家를 중심으로 본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전체 8장으로 이루어졌다.

제 3편 正家 : 8章으로 이루어져 가정을 고르게 하는 것을 말하였다.

제 1장 總論은 家庭을 바르게 하는 道理를 전반적으로 다루었으며,

제 2장 孝은 모든 행동의 첫째가 된다고 보아 여러 방면의 孝를 예를 들어 설명했다.

제 3장 刑內는 집을 다스리는 데는 아내가 중요하다고 보고 아내의 道理를 논했다.

제 4장 教子는 胎敎에서 부터 시작되며 교육의 순서와 양육자의 자질까지 논하고 있다.

제 5장 親親은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妻子에게 모범이 되며 형제간에 우애하는 道理에 대해 논하고 있다.

제 6장 謹嚴은 각 가족과 친척간에 삼가해야 하는 禮節을 내용으로 집안을 다스리는 道를 모두 다루었다.

제 7장 節檢은 검소와 절약, 저축에 대해 논했다.

제 8장 正家 功效는 앞서 설명한 것을 실천함으로써 齊家를 이루면, 능히 治國하는 데 까지 나갈 수 있다는 效果를 말했다.

2. 聖學輯要에 나타난 사상적 특징*

3. 聖學輯要에 나타난 자녀교육관

『聖學輯要』의 正家篇에서는 夫婦間의 예가 올바르게 세워진 연후에야 자식을 가르칠 수 있다고 보았다. 현대사회에서도 부모들은 사회질서를 도모하여 체제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기본적인 가치관을 자녀들에게 내면화시킴으로써 사회체제가 개인들에게 요구하는 인성을 형성하고 그들이 수행해야 할 사회적 역할을 교육시킨다(한국가족학연구회, 1993)고 하여 가정내의 부모의 역할을 중시했다. 聖學輯要에 나타난 자녀교육내용은 胎敎, 早期敎育과 環境, 敎育하는 順序, 生活敎育, 學問

하는 姿勢로 이루어졌다.

1) 胎 敎

栗谷은 列女傳을 인용하여

옛날에는 부인이 아이를 임신하면 옆으로 누워 자지 아니하고 비스듬히 앉지를 아니하였으며, 외발로 서지 아니하고 맛이 야릇한 음식을 먹지 아니하였다. 자른 자리가 바르지 아니한 음식은 먹지 아니하고 자리가 바르지 아니하면 앉지 아니하였다. 사특한 색깔은 보지 아니하고 음란한 소리는 듣지 아니하며, 밤이면 장님으로 하여금 시를 외우게 하되 바른 일을 말하게 한다(栗全, 1卷 23, 聖學輯要 5, 正家 敎子章)

장남에게 시를 외우게 하는 것은 그 소리가 정밀하기 때문이며 바른일(正)이란 禮에 알맞는 것을 가리킨다. 이와 같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모든일이 다 올바르게 그 형체나 용모가 단정하고 재주가 남다르게 뛰어난 자식을 낳는다고 했다.

栗谷은 子女敎育은 마땅히 태어나기 이전 즉 잉태이전 兩親의 資格에서부터 중요하게 보았다. 즉 青年期의 發達課業으로서의 부모됨의 준비는 미래의 父母役割遂行 및 子女發達에 영향을 주므로 生涯發達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유안진, 신앙재, 1993)고 보는 것과 같다. 그렇기에 부부의 禮가 올바르게 세워진 후에야 자식을 가르칠 수 있다고 했으며, 이는 부모됨의 자세가 되어있느냐의 여부를 말하는 것이며 자식을 가르치는데 胎敎를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이다. 즉 胎敎중 兩親이 실천하는 胎敎的 努力이 간접적으로 胎兒를 敎育한다는 胎敎思想이다(유안진, 1982).

현대적인 개념으로서 胎敎는 임부가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 언행, 마음, 감정 등을 정화시키는 일(한국어대사전 편찬위, 1976)이라고 하여 태아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길러주기 위한 胎內環境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胎敎란 受胎중인 부인이 태아에게 좋은 敎育的인 環境을 조성해 주기 위해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현대 의학에서도 의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본 연구자의 논문 “『聖學輯要』에 나타난 家族觀”(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1권 1호, 1993)을 참조 바람 (지면관계상 제시하지 못했음).

2) 早期教育和 環境

栗谷은 程子の 말을 인용하여 早期教育의 필요성 및 생활을 통한 反復教育和 習慣形成을 강조하였다. 또한 早期教育의 방법과 효과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옛날 사람은 자식을 낳아서 그가 능히 스스로 밥먹을 줄 알거나, 능히 말할 줄 알게 되면 곧 그를 교육시키되 小學의 법도를 가르치고 先人들의 어렸을 때 일을 말하도록 한다. 분별하는 생각이 아직 주장하지 못한다면, 곧 格言과 지당한 義論으로써 날마다 그 앞에서 얘기하며, 비록 잘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한 마땅히 배우고 익히게 하면 귀에 차고 마음에 가득하여, 오래 가면 스스로 편안히 익혀져서 마치 그것이 본래부터 있는 것같이 되므로, 비록 다른 말로써 현혹시킨다 할지라도 빠져 들지 않을 것이다. 만일 미리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좀 장성하게 되면, 사사로운 생각과 偏僻스런 호기심이 마음속에 싹트고, 못 사람들의 말들이 밖에서 호리기 때문에 순수하고 완전한 것을 바라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다(栗全 卷23, 聖學輯要5, 正家 教子章).

栗谷은 또한 자식을 맡아 길러주는 乳母가 자녀의 人性 形成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고 보아서, 신중하게 고를 것을 말한다.

무릇 자식을 낳으면 그 여러 어머니(諸母) 중에서 유능한 자를 가리되, 반드시 너그럽고 인자하며, 사랑스럽고 온화하며, 착하고 공손하며, 삼가 예의를 차리고 조심해서, 말을 적게 하는 이를 골라서 그로 하여금 자식의 스승으로 삼는다(栗全 卷23, 聖學輯要5, 正家, 教子章).

사람이 태어나 최초로 경험하는 환경은 家庭環境이며, 더욱이 어머니는 아들에게 절대적이며, 다른 곳에서 대항 할 수 없는 고유의 구실을 담당한다. 따라서 어렸을 때의 교육은 어머니가 어떠한 인품을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내

용을 가르쳤느냐에 따라서 家庭教育내용이 달라지는 것이다.

3) 교육하는 순서(栗全 卷23, 聖學輯要5, 正家 教子章)

栗谷이 언급하고 있는 교육의 순서를 연차별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자식이 능히 밥을 먹을 수 있게 되면 오른 손으로 밥을 먹도록 가르치고, 능히 말을 할 수 있게 되면 사내는 빨리(唯) 대답을 하도록 하고, 계집애는 느리게 대답을 하도록 한다. 그리고 사내는 가족으로 된 주머니를 차게 하고, 계집애는 실베로 만든 주머니를 차게 한다.
- 나이 여섯살이 되면, 셈수와 방위의 이름을 가르치고, 일곱 살이 되면 사내와 계집애를 같은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며, 음식을 같이 먹지 못하게 한다. 여덟살이 되면 문을 출입할 때나, 자리에 앉을 때나, 음식을 먹을 때에, 반드시 웃어른이 하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할 것이니, 비로소 辭讓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아홉살이 되면 날짜 세는 법을 가르치게 된다.
- 나이 열살이 되면 사랑에서 가르치는 스승을 바깥방에 나가서 맞이하고, 거처는 바깥방에서 하며, 글(書)과 셈을 배우고 비단 아닌 배운을 입고 禮를 비로소 따라 행하게 하고, 아침저녁으로 어린이의 범절을 배우되 간략하고 신실한 일로 청하여 익힐지니라.
- 나이 열세살이 되면 음악을 배우고, 詩를 외어 읽으며, 勺춤을 추고 成童이 되면 象춤을 추며 활쏘기와 말달리는 법을 배운다.
- 스무살이 되면 冠禮를 행하고 비로소 禮를 배우며, 갓옷과 비단 옷을 입고 大夏춤을 출 수가 있다. 효도와 우애를 돈독히 실행해 나가고, 널리 배우되 남을 아직 가르치지 못하며, 그 미덕을 마음속에 지니되 드러내 보이지 못한다.
- 나이 서른 살에 장가 들고 비로소 남자의 할일을 처리하며, 널리 학문을 닦되 널리

배우고 친구를 공손하게 대하여 그 뜻을 받든다.

- 나이 40살에 비로소 벼슬을 하게 되고 일에 대하여 智謀를 짜내며, 생각을 발표하여 도리에 합치할 것 같으면 복종을 하고, 옳지 아니하면 그만두고 떠나간다.
- 나이 50살에 명을 받아 大夫가 되고, 벼슬 자리에 나아가 政事를 맡아 보며, 나이 70살에 벼슬에서 물러난다.

이와 같은 교육내용은 선비가 되기 위한 子女教育으로 <小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선비들의 삶은 초보적인 受敎의 시기에서 修學의 시기로 修學의 시기에서 行道の 시기로 行道の 시기에서 隱退의 시기로 전개되며 그중 중심이 되는 시기는 修學과 行道の 시기이다(禹英姬, 1989). 修學 30년(10~40세), 行道 30년(40~70년)으로 모두 60년에 이르는 기간이다. 이와 같이 40세가 되기 전까지도 배우는 일과 敬身을 해야 했으며 그 이후에야 자신의 주관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幼兒期에서부터 70세에 이르기까지의 발달 과정을 제시한 것으로 오늘날 平生敎育의 개념과 합치된다. 生涯敎育은 학습이 아동을 성장시켜, 하고자 하는 일의 종류를 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하는 바를 의미한다(Kramer, 1973) 그러나 7세의 男女不同席은 현대사회에서 남녀동등사상의 경향에 부합되지 않으며 30세에 비로소 남자의 할 일을 처리한다는 것은 오늘날에는 불합리한 점이다. 다만 배움에는 한계가 없으며 항상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함은 교육적인 의미가 크다고 본다. 이상에서 본 年齡에 따른 敎育은 표와 같다.

4) 生活敎育

栗谷의 生活敎育 내용은 아동의 행동을 훈계한 「小兒須知」와 20세의 청년기에 栗谷이 스스로의 생활을 경계한 自警文의 내용을 밝힘으로써 그 교육내용을 살펴 보기로 한다.

栗谷은 그의 「小兒須知」에서 다음과 같이 아동의 일상생활을 경계하고 있다(栗全 拾遺 卷4, 雜著 小兒須知).

年齡에 따른 敎育

연 령	교 육 내 용	기 타
밥을 먹 을수 있는 나이	오른손을 사용하도록 가르치고 대답하는 법을 가르친다	남녀교육내용을 달리함
6세	셈수, 방위의 이름	
7세	남녀 분별(男女七歲不同席)	같은 곳에서 식사를 못함
8세	사양하는 법, 행동거지의 예절, 공경법	
9세	날짜세는법, 六甲	
10세	안과 밖의 생활을 구별, 글과 셈을 배우고 어린이의 범절을 배운다	베옷을 입히며 예에 따라 하는 동작을 배운다
13세	樂을 배우고 詩를 외우게 하고, 勻과 象을 추게 한다.	勻은 文을 상징하는 춤 象은 武를 상징하는 춤
20세	冠禮를 행한다. 효도와 우애를 실행. 모든 禮를 배운다 (吉禮, 凶禮, 冠禮, 賓禮, 軍禮, 婚禮, 嘉禮)	成人이 알아야 할 의례, 美德을 쌓기만 할 뿐 드러내지 못하고 남의 스승이 될 수 없다
30세	아내를 얻고 비로소 남자의 할일을 처리한다	남자의 할 일 : 사회활동, 가정에서의 대외적인 일
40세	벼슬길에 나간다	도리에 맞으면 따르고 옳지 않으면 그만 둠
50세	벼슬에 나가 大事에 참여하며, 政事를 맡아본다	
70세	隱退한다	일을 군주에게 되돌림

-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말을 지키지 아니하고, 마음을 딴 일에 쏟고 있는지?
- 부모가 지시한 것을 곧 시행하지 않고 있는지?
- 형이나 어른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말하는 것이 사나운지?
- 형제가 사랑하지 아니하고, 서로 노여워하는 일이 있는지?
- 음식을 먹을 때 서로 다투거나, 서로 사양하지 않는지?
- 다른 아이들을 모욕하거나, 서로 노여워하고 다투는지?
- 서로 경계하라는 충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문득 원망과 노여운 생각을 나타내는지?
- 두손 모으고 절하는 것이 단정하지 아니하고, 옷소매를 풀어헤치고 절름발이 걸음놀음을 하는지? 걸음걸이가 경솔하고, 어디에 뛰어오르거나 뛰어넘는지?
- 희롱이나 익살스러운 말하기를 좋아하고, 말하고 웃고 하는 것이 시끄럽거나 요란한지?
- 이로움이 없는 일이나 자기와 관계없는 일을 하기 좋아하는지?
- 책을 읽을 때 서로 돌아보고 이야기를 하는지?
- 공부할 때 마음을 놓아 사리에 어둡고, 낮에도 또한 앉아서 즐기고 있는지?
- 나쁜 점을 감싸고 잘못된 점을 숨기고, 말이 진실하지 않은지?
- 한가로운 사람만 대하기를 좋아하고(好對閑人), 누구의 공부 그만둔 것을 들어 이야기 하는지?
- 草書로 흘려서 쓰기를 좋아하고, 어지러운 글씨로 종이를 더럽히는지?

대인관계의 태도, 행동거지와 자세, 대화법, 물자절약에 관해 예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오늘날 부모들의 子女教育 態度가 자칫 아동을 방종으로 흐르게 하기 쉬운 상황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守則들이라고 사료된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주로 일상생활에서의 행동거지에 관한 내용으로, 마지막에 守則을 어겼을 때의 罰을 주는 단계를 논함으로써 스스로 意志가 약한 아동에 대한 習慣形成과 基本的인 態度形成을 부모가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번 나쁜 습관이 들면 고치기가 어렵고 이 또한 부모가 고쳐주지 않음이니 어려서의 家庭教育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栗谷의 小兒須知보다 약 100년 전에 쓰여진 <內訓>(1475)에서도 자녀를 교육시킬 때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함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랑함만 있고 가르침이 없으면 자라서 곧 어질지 못하니, 제 뜻만 받아주지 말고 조금만 방종하거든 문득 조심케 하여 그 나쁜 점을 감싸주지 말도록 하며, 한 번이라도 잘못을 저지르면 급히 그런 버릇을 때려서라도 없애야 한다. 아이의 허물 있음이 모두 어머니가 길러 놓은 것이니 그렇게 길러 자라게 되면 비록 누우치더라도 그 때 가서는 늦으리라(昭惠王后, 1988).

100년후인 조선시대 후기의 학자인 宋時烈(1606~1689)이 쓴 戒女書에서도 일상생활에서의 자녀교육내용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金鍾權 역주, 1987).

- 어렸을 때부터 속이지 말고
- 너무 때리지 말며
- 글을 배울 때도 순서 없이 권하지 말고, 하루 세 번씩 권하여 익히고 잡된 장난은 못하게 하고
- 세수를 일찍하게 하고
- 친구와 약속을 했거든 지키게 하여 남과 실언치 말게 하고
- 잡된 사람과 사귀지 못하게 하고
- 일가 제사에 참례케 하고
- 온갖 행실은 옛사람의 좋은 점을 배우게 한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약 300년 동안 자녀교육의

내용은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자녀교육이란 어렸을 때 가정에서의 일상생활을 통한 가정교육이 중요함을 깨닫게 해 주는 것이다. 또한 그 주요 내용은 禮節과 道德教育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5) 學問하는 姿勢

다음은 栗谷이 주장한 학문에 임하는 자세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 學問을 처음 하는 사람은 먼저 뜻을 세우고 勇往直前해야 한다.
- 진리를 알면 실천에 옮기고 넓은 습관은 버리고 人間의 本性(善)으로 돌아가라.
- 인간은 모두 聖인이 될 수 있으니 스스로 노력하면 이를 수 있다.
- 하늘로부터 받은 것은 고칠 수 없으나 마음과 뜻은 고쳐서 슬기롭고 어질게 할 수 있다.
- 학문을 함이 일상 생활을 하고 일을 하는 사이에 있는 것이니 만약 평상시에 거처함이 공손하고, 하는 일을 공경히 하고, 남과 더불어 성실하면 이것을 곧 말하여 학문한다고 할 것이니 책을 읽는 것은 이 이치를 밝히고자 하는 것일 뿐이다.
- 바깥 事物에 이감을 당해서는 안될 것이고, 事物이 바르지 못한 것이라면 마땅히 일체 마음에 두지 말아야 한다.
- 삼가하여 몸을 가짐으로써 根本을 세우고, 事理를 깊이 연구함으로써 선을 밝히고 힘써 행함으로써 그 진실을 실천하니, 이 세 가지 것은 몸을 마칠 때까지 해야 할 사업이다.
- 날마다 자주 자기 몸을 돌이켜 보아 혹시 마음이 올바른 데 있지 않은가. 學問이 진보되지 않았는가, 實行에 힘쓰지 않았는가를 살펴 한 가지라도 그렇다면 고쳐야 한다.

이외에도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해롭히는 여덟 가지 要素(栗全 卷27, 擊蒙要訣, 革舊習章)을 예를 들면서 과감히 용기를 내어 뿌리채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첫째로, 그 마음과 뜻을 게을리 하고 그 몸가짐을 함부로 해서, 다만 한가하고 편안하기만을 생각하고, 몹시 구속을 싫어한다.

둘째로, 항상 움직이는 것만 생각하여 안정을 지킬 수 없고, 분주히 드나들면서 떠들며 헛되이 날을 보낸다.

세째로, 같은 것을 좋아하고 다른 것을 싫어하여 옛날부터 내려오는 陋俗에 골몰하고, 조금 고치려 하다가도 남들에게 따돌림을 받을까 두려워 한다.

네째로, 글이나 말로서 時俗에 칭찬 받기를 좋아하고, 經典을 표절해다가 알맹이 없는 글을 꾸민다.

다섯째로, 편지 쓰기에 공을 들이고, 거문고를 타고 술 마시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하는 일 없이 세월을 보내며 스스로를 깨끗한 운치라고 한다.

여섯째로, 한가한 사람을 모아서 바둑이나 장기 두기를 좋아하고 배불리 먹기를 중일토록 하면서 다만 다름을 일삼는다.

일곱째로, 富하고 貴한 것을 부러워 하고 貧하고 賤한 것을 싫어하면서 나쁜 옷을 입고 나쁜 음식을 먹는 것을 몹시 부끄럽게 여긴다.

여덟째는, 즐기고자 하는 慾心에 節制가 없어서 끊고 억제할 수 없고 財物의 이익과 노래와 여색의 그 맛이 달콤하니, 이것을 익혀 마음을 해치는 사람은 대개 이리할 것이고, 나머지는 이로써 다 듣기 어렵다.

栗谷은 집안을 바르게 하는 일로써 夫婦의 禮義가 잘 이루어진 후에는 자식들의 교육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했으며 집안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곧 바람직한 家庭教育 環境을 조성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 오늘날 子女教育和 상당한 차이점을 두는 것은 男女教育에 있어서의 분별이다.

栗谷이 강조한 子女教育內容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자녀교육은 胎教에서 부터 시작된다(栗谷이 夫婦의 道 다음에 子女教育을 넣은 의도는 자녀를 갖기 전에 부모됨의 자세를 중요시 여긴 이유이며, 이것은 胎教에 연결이 된

- 다.)
- 子女教育은 習慣形成이 되기 전에 일찍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 子女教育은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반복됨으로써 이루어진다(家庭教育과 家庭環境을 중요시 함).
 - 子女教育은 자녀를 기르는 사람과 교육을 맡은 자에 의해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 子女教育 內容은 時期에 적절한 학습내용을 교육시켜야 한다.
 - 학문에 임할 때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은 학문의 성패를 좌우한다.
 - 자녀를 교육시키는 데는 年齡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課業이 있다.

III. 결론 및 논의

傳統儒敎社會의 기본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修己(몸을 다스리는 일)와 治人(사람을 다스리는 일)의 사상을 담고 있는 『聖學輯要』는 教育에 의한 인간의 變化可能性을 강조하였다.

『聖學輯要』 正家篇 教子章에서는 인간의 본성은 善한 것이라고 믿고 누구든지 노력하면 聖人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아 특히 教育을 강조하였는데 受胎하기 전에 부모됨의 자세에서부터 논의하여 70세에 이르기까지의 發達課業을 제시했다는 것은 現代社會에서 教育을 生涯發達 觀點으로 보려는 경향과 합치된다.

教子章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胎敎의 중요성이다. 자녀는 마땅히 잉태 이전 부부의 禮가 올바르게 세워진 연후에 가져야 하며, 受胎중인 부인이 태아에게 좋은 태내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둘째, 早期敎育과 環境의 중요성이다. 자녀는 스스로 밥먹을 줄 알면서부터 敎育을 시켜야 되며, 비록 잘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배우고 익히게 하면 귀에 차고 마음에 가득하여 본래 있는 것 같이 된다고 하여 생활을 통한 反復學習과 習慣形成을 강조하며, 早期敎育의 방법과 효과까지 논하고 있

다. 또한 乳母는 자녀의 人性形成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고 보아 신중히 고를 것과, 자식의 스승으로 삼을 만한 사람의 자질을 일일이 지적하였다. 이는 오늘날에도 부모들이 유아敎育기관에 자녀를 맡길 때에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으로 사료된다.

세째, 生活敎育과 學問하는 자세를 강조하였다. 敎育하는 순서를 연차별로 분류하여 연령별 발달 과업을 70세까지 제시하고 있는데, 生涯敎育의 측면에서 볼 때 내용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데는 무리가 있으나 자녀敎育에 있어 지도하고자 하는 바를 미리 계획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네째, 生活敎育을 강조했다. 가정에서의 자녀敎育이란 일상생활을 통한 敎育이 중요함을 말했다.

다섯째, 學問을 할 때에는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성패를 좌우한다고 보았다. 자녀의 올바른 習慣과 態度形成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罰과 訓戒으로써 부모가 적극적으로 임해야 함을 강조한 것은 현대 부모들의 溺愛의인 養育態度를 再考하는데 좋은 시사가 되고 있다.

『聖學輯要』에 나타난 가장 기본적인 사상은 誠實함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生涯學習이나 自我實現이라는 것도 立志를 돈독히 하여 꾸준히 誠實하게 하는 것이 인간의 계속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는 動因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敎育이란 마음의 본체를 內向的으로 觀照하는 것이 아니며 外向的으로 그 價値를 나타내도록 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어떤 固定된 형식으로써의 의미를 피하고 현실에 융통성 있는 인간의 자율성을 기르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오늘날 강조되어야 할 한국의 人間敎育의 目標가 西歐의 理論과 方法으로 일관되어서는 안되며, 한국인의 삶 속에 독특하게 스며 있는 敎育의 原理가 創出되어야 함을 감안할 때, 栗谷의 『聖學輯要』에 나타난 子女敎育觀은 現 우리 나라의 상황에서 시사점이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 1) 金敬琢(1960). 栗谷의 研究. 한국연구총서 제7집 한국연구도서관.

- 2) 金仁會 外(1986). 한국교육사상연구, 집문당.
- 3) 昭惠王后(1988). 内訓. 정양완 역주, 학원사.
- 4) 孫直銖(1988). 핵가족시대에 있어서 가정교육의 과제, 인문과학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17>, 81.
- 5) 宋時烈(1987). 戒女書. 김중권 역주, 명문당, 261-263.
 조식가라치논도리라
- 6) 孫仁銖(1982). 율곡의 교육사상. 박영문고105 박영사, 82.
- 7) _____(1991). 한국인의 가정교육. 문음사.
- 8) 『栗谷全書』1(199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 9) _____2(199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 10) 『율곡집』(1977). 고전국역총서 22, 민족문화추진회.
- 11) _____(1977). 고전국역총서 23, 민족문화추진회.
- 12) 李啓鶴(1993). 한국인의 전통교육사상과 가정교육, 한국인의 전통가정교육사상, 정신문화연구원 연구논총 93-18, 257.
- 13) 尹明老(1985). 傳統的 家庭倫理教育, 정신문화연구. 가을호, 28-134.
- 14) 李丙燾(1979). 栗谷의 生涯와 思想, 서문문고 93, 서문당.
- 15) 禹英姬(1989). 朝鮮時代 敎訓書를 통해 본 子女敎育, 중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8.
- 16) 柳岸津(1982). 한국 전통사회의 유아교육. 정민사, 22.
- 17) 유안진·신양재(1992). 부모교육. 동문사.
- 18) 정문숙(1986). 한국심리학의 인간관과 현대교육적 의미, 한국교육사상연구. 집문당, 41.
- 19) 林嬉變(1988). 社會變動과 價値觀. 정음사.
- 20) 鄭範謨(1992). 價値觀과 敎育. 교육신서1, 배영사.
- 21) 한국가족학 연구회(1993). 가족학. 하우, 15.
- 22) 洪달아기(1993). 율곡의 가정교육관 연구. 성신여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3) _____(1993). 성학집요에 나타난 가족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1), 151-153.
- 24) Martin Kramer(1973). Office of the Secretary, on International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Memorandum.
- 25) Tu Wei-Ming(1985). Yi Yulgok's Perception of Sagely Learning, 제 3 회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318.